

古文의 敍事기법에 대한 전통시기 文人の 분류 고찰*

— 《左傳》을 중심으로

박성진**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서사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III. 《左傳》과 전통학자들의 서사론
 - IV. 《左傳》의 서사 기법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연구에 있어 '敍事'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테마 또는 학습 대상으로 '서사'를 접해왔고 '서사'에 관한 많은 저작물과 기간 논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 문학 연구에도 서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 되었다. 좁혀서 고전산문의 연구, 특히 필자의 주 관심분야인 선진양한의 史傳산문에 있어서만 보자면, 서사는 사실 고전산문의 그 자체 혹은 골자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전통시기의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개인적인 심득을 체계화 하지 못하거나, 혹은 과도한 수식으로 의미전달이 모호한 언사 등의 문제도 없지 않고, 게다가 현재 유행하는 서구의 서사론처럼 세련된 감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고, 전통 학자들이 구체적인 작품과 문장에 들어가 실제 사례에서 서사기법이나 이론을 귀결시키려 했던 시도와 도출된 견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한다. 21세기 현재, 서사 담론은 문학 연구 영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문학과 인접한 인문학 및 더 나가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바, 더 이상 문학연구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문학연구방법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것으로 환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정작 그 논의들이 지나치게 거대 담론화 혹은 추상화의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구체물인 작품과 유리되어 거대 담론화된 서사론은 정작 문학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로 환원시켜 적용하려 하면, 물론 필자의 고루한 견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추상성에 매몰되어 매 작품의 분석에서는 무용지물 혹은 현란한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 있는 서사방법이나 서사패턴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문학연구에서 유효하며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상 진술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본고를 착수하였다. 즉 중국 고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 淸末까지 전통시기 학자들의 서사론을 살펴보고 나름의 의견을 말해보고자 시도한 글로서, 漢語 문장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左傳》의 서사패턴을 연구한 것이다.

II. 서사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5.4 신문학운동 이후 서구의 문학이론에 자극을 받은 중국 및 동양의 학자들이 서사에 주목하고 괄목한 만한 성과를 많이 내놓았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서사의 개념이나 구조 또는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중 비교적 본고의 주제와 가까운 몇 권의 서적과 기간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성과 소개를 대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본고는 전통 학자들의 연구 성과, 즉 그들이 제출한 古文에서의 구체적 서사 패턴을 소개하고 귀납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거니와, 기실 중국의 서사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있어 필자의 채언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서사라는 용어나 그 행위의 대응적 구체물을 상징한다면 일차적으

로 역사서이다. 그러나 史書의 서술방법이나 유형에 대한 연구와 감상은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점차 문학으로 전이되었다. 기실 전통시기 학자들을 사학자나 문학자나 구분한다는 것이 우매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우리는 부득이 하게 문학의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이래 중국의 서사에 대한 연구의 주체가, 혹은 담당자가 문학 분야로 옮겨진 후, 주로 소설 분야에서 중국의 서사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우선 한국인의 연구를 살펴보자. 중국 서사를 주제로 한 것으로는 홍상훈의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는 논문의 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선 전통 시기 중국인들이 이미 “어떤 사건에 대해 조리와 체계에 맞게 서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던 ‘敘事’라는 말을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한 ‘중국적’ 서사의 개념을 전제로, 전통 시기 중국인들이 서사 행위에 대해 부여하고자 했던 의의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다.¹⁾

그는 다른 글에서도 중국 서사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필자는 전통 시기 중국을 관통하는 ‘서사’의 개념은 儒家的 지식인들의 ‘經世’ 지향적 문장관에 강한 영향을 받은 까닭에, 이른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의 특수한 ‘담론discourse’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념의 변천사를 고찰해보면, 司馬遷을 頂點으로 六朝 시대까지 하나의 획기적인 굴절을 이루면서 서사 행위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가 시도되고, 이어서 唐代 前期에 이르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서사체로서 ‘역사 서사’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이 정립되며, 中唐 이후 宋·元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토대로 明代 중엽에 이르면 오늘날의 ‘소설’과 유사하면서도 강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특수한 ‘문학 서사’의 개념이 형성된다.”²⁾

홍상훈의 성과물은 그 중점이 중국 서사의 개념과 그 사유나 형식의 전변과정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서사가 문학서사, 즉 소설로 넘어간다는 그의 견

- 1) 홍상훈, [논문제요]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중국소설연구회보》 39호, 1999, 72쪽.
- 2) 홍상훈, 〈司馬遷의 敘事論〉, 《中國小說論叢》 제8집, 서울: 《韓國中國小說學會》, 1998. 66-67쪽.

해를 참고로 하면서 이 점을 연계한 연구와 함께 살펴보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 연구자 陳平原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에서 중국소설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서사와 연계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³⁾ 그 책의 내용은 대개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本書는 크게 두 부분(첫째 西方小說의 啓示와 中國小說敘事方式의 變化, 둘째 中國小說敘事方式의 轉換 중에 있어서의 傳統文學의 作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구미에서 유행하는 敘事學理論을 導入하여 敘事時間·敘事角度·敘事構造의 세 가지 측면에서 變化要因을 抽論·分析하였다. 傳統小說은 약간의 例外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敘事時間에 있어서는 自然의 時順에 따르는 連貫敘述을, 敘事角度에서는 全知觀點을, 敘事構造에서는 플롯중심의 構造를 취해왔다고 지적하였다. …… 두 번째 부분에서는 傳統文學의 諸要因을 受容하는 創造的 轉換過程을 논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小說이 “小道”로 輕視되는 從來의 變두리 位置에서 文壇의 中心位置로 移轉되는 過程에서, 中國文學의 精髓를 吸收함으로 말미암아 서술방식에 있어 變化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傳統文學의 作用을 指稱하면서 …… 전통문학이 소설에 어떠한 형태로 受容되었는가를 歷史的·社會的 背景과 心理的인 審美意識背景의 角度를 통한 分析의 結論으로, 新小說家は 「史傳(歷史)傳統」에, 五四小說家は 「詩騷(詩歌)傳統」에 보다 치중하여 傳統의 敘述方式을 轉換시켰다고 主張하고 있다.⁴⁾

두 사람의 관점은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전통시기 중국 서사에 관한 두 사람의 견해는 아래의 의견으로 귀납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중국 전통사회의 꽤 늦은 시기까지 대부분의 문학 이론가들은 서사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서사에 대한 주석과 이론들은 본래 역사 서사물의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허구적 서사물들은 자주 역사적 서사물의 기준에 맞춰 이론화되고 평가되었다. 역사 저작물은 서사 저작들을 해석하는 주요 양식이었다. 서사는 역사였고, 소설은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한 역사였다. 수많은 허구적 서사물들의 존재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중국의 서사학은 “역사편찬학(poetics of historiography)”이었다. 역사편찬은 사람들에게 서사를 구성하는 목표와 기준,

3) 陳平原, 《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 上海人民出版社, 1988.

4) 오순방, [新刊書評] 陳平原 著 『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 中國小說史의 새로운 研究業積 《중국소설연구회보》 제7호, 1991. 43-45쪽.

방법들을 가르쳤다. 허구에 대한 독립적인 이론은 중국 왕조의 말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하기(narration)라는 개념은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통상적이다. 그러나 “서사(narrative)”는 중국의 문학 체계와 장르 연구에서 일반적인 범주로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국 역사에 있어서 역사 저작은 우세한 서사 장르로 남아 있다.⁵⁾

필자는 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나름대로 수용하여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우선 서사라는 행위와 개념은 중국 고대의 특수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체로 그 시작은 雅, 즉 역사서사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俗으로 진입하여, 주로 四大奇書로 대표할 수 있는 소설에 반영된다. 이런 轉變과정에는 사상적, 역사적,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개입하였다. 여기서 홍상훈과 魯曉鵬의 관점은 상당히 접근한 점이 있다. 다만 본고는 진평원의 분석에 더 접근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좀 더 구체적인 문장의 작법, 즉 글쓰기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Ⅲ. 《左傳》과 전통학자들의 서사론

《左傳》의 서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劉勰을 위시한 많은 이들의 높은 평가가 전해 온다.⁶⁾ 지금까지도 이런 평가는 큰 변화가 없다.⁷⁾ 우선 전통시기 최초로 〈敘

5) 魯曉鵬, 조미원 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25쪽.

6) 劉勰 《文心雕龍·史傳》: 「《左傳》實聖文之羽翮, 記籍之冠冕也. 辭宗丘明。」; 劉知幾 《史通·內篇·模擬第二十八》: 「蓋左氏爲書, 敘事之最。」; 賀循 《經義考》169卷: 「左氏之傳, 史之極也. 文采若雲月, 高深若山海。」; 陸游 《渭南文集》: 「前輩于左氏傳, 太史公書, 韓文, 杜詩皆通讀暗誦。」; 方苞 《方望溪先生文集》: 「夫紀事之文, 成體莫如《左傳》。」; 劉大樞 《論文偶記》: 「不著脂粉而精彩濃麗, 自《左傳》莊子史記而外, 其妙不傳。」; 林紓 《左傳擷華》: 「一左一馬一韓而已。」; 劉熙載 《藝概·文概》: 「可知其衆美兼擅矣, 剪裁運化之方, 斯爲大備。」; 章學誠 《章氏遺書》: 「敘事之文 …… 其法莫備于《左傳》。」

7) 梁啓超 《要籍解題及其讀法》: 「《左傳》文章優美, 其記事對於極復雜之事項如五大戰役等, 綱領提挈得極嚴謹而分明, 情節敘述得極委曲而簡潔, 可謂極技術之能事. 其記言文淵懿美茂, 而生氣勃勃, 後此亦殆未有其比. 又其文雖時代甚古, 然無佞屈聱牙之病, 頗易誦習, 故專以學文爲目的, 《左傳》亦應在精讀之列也。」(《史地學報》, 1924, 第8期); 錢鍾書 《管錐編》: 「吾國史籍工于記言者, 莫先乎《左傳》。」(北京, 中華書局,

事)라는 편명으로 의견을 피력한 劉知幾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본다. 《左傳》을 ‘敘事之最’⁸⁾라고 숭상하며 《史通》 전편에 걸쳐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아래는 그 중의 한 부분이다.

서사의 체재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그 재행을 기록한 것, 오직 그 사적만을 써낸 것, 언어에 의지해서 알 수 있는 것, 논찬을 빌려서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 (《左傳》의) 단어는 가까이 있는 친밀한 것들이지만 의미는 광범위하게 확대되며, 언어는 피상적이지만 원리는 심오하다. 서술은 이미 끝났을지라도 잠재된 의미는 고갈되지 않는다. 독자가 겉을 보는 것으로 속을 알게 하고 털을 어루만짐으로써 뼈를 분별하게 하고 문장에서 한 사건을 보면 글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숨겨진 표현이 아니겠는가. 위대하지 아니한가! (蓋敘事之體, 其別有四. 有直紀其才行者, 有唯書其事跡者, 有因語言而可知者, 有假讚論而自見者, …… 《左傳》)斯皆言近而旨遠, 辭淺而義深, 雖發語已殫, 而含意未盡; 使夫讀者, 望表而知裏, 捫毛而辯骨, 觀一事於句中, 反三隅於字外. 晦之時義, 不亦大哉!)⁹⁾

劉知幾는 ‘역사 서사’의 체재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즉, 하나, 재능과 행적을 직접 기록하는 것(直紀其才行者), 둘, 事迹만을 기록하는 것(唯書其事跡者), 셋, 언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因言語而可知者), 넷, 評語를 빌어 서술자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假讚論而自見者)등이 그것이다.¹⁰⁾ 그리고 이어서 이런 네 가지를 갖춘 책으로 《左傳》을 평가한다. 유지기의 서사론과 《左傳》의 연계성 대해서는 魯曉鵬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1994), 164쪽;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左傳》…… 戰國時代無可否認的最優秀的歷史散文作品」(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70쪽.

8) 《史通·模擬》

9) 《史通·敘事》

10) 그런데 여기서 평어를 빌어 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太史公曰’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될 것이나, 실은 《左傳》이 그濫觴이다. 《左傳》은 ‘君子曰’ ‘仲尼曰’ 등을 내세우며 논찬에서도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좌구명은 절대 現身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남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중국의 오랜 습관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당시 명사의 평가를 빌린 것일 수도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左傳》 작자의 주관적 판단과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지기는 《左傳》과 같이 잘 쓰인 역사 서사에서는, 기록된 사건들의 의미가 자명해서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가는 사건을 논평하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적할 필요가 없다. 과거를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열거하면 독자는 사건들에 내재한 도덕적인 교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역사 서사는 해석이 필요 없다. 훌륭한 역사적 글쓰기는 약간의 단어가 무수한 의미들을 환기시켜 내는 투명하고 간명한 문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 역사 서사 속의 언어와 의미의 구조에 대한 유지기의 관점은 “미언대의(微言大義)”의 해석학적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에게는 언어와 의미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지기는 직접성, 명백성, 투명성, 간결성, 극도의 절제성이라는 덕목들로 서사 언어를 선택한다. 의미와 원리는 그러한 언어로부터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나온다. 어렵게 고심하여 해내는 해석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는 것은 주석 전통 속에서의 《춘추》 혹은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左傳》 문체의 간결하고도 분명한 서술을 의미한다.¹¹⁾

주지하듯 중국 文史연구에서 유지기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章學誠(1783-1801)이다. 그도 역시 《左傳》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귀납하여 유지기의 4종 기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물론 그의 견해는 아마도 元나라 陳繹曾의 《文筌》¹²⁾과 淸나라 李紱(1675-1750)의 《秋山論文》¹³⁾의 계발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章學誠

11) 《역사에서 허구로》, 129-130쪽

12) 敍事に 대하여 正敍, 摠敍, 間敍, 引敍, 鋪敍, 略敍, 別敍, 直敍, 婉敍, 意敍, 平敍의 11종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이미 사라지고, 그 내용이 明 高琦가 編撰한 《文章一貫》에 輯錄되어 있다. 陳氏는 아울러 각 기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正敍, 敍事得文質詳略之中. 摠敍, 摠事之繁者, 略言之. 間敍, 以敍事爲經, 而緯以他辭, 相間成文. 引敍, 首篇或篇中用敍事以引起他辭. 鋪敍, 詳敍事語, 極意鋪陳. 略敍, 語簡事略, 備見首尾. 別敍, 排別事物, 因而備陳之. 直敍, 依事直敍, 不施曲折. 婉敍, 設辭深婉, 事寓于情理之中. 意敍, 略觀事迹, 度其必然, 以意敍之. 平敍, 在直婉之間.」《古漢語修辭學資料匯編》鄭奠、譚全基 編 商務印書館 1980年 재인용

13) 李紱은 順敍, 倒敍, 分敍, 類敍, 追敍, 暗敍, 補敍, 借敍, 特敍, 夾敍夾議의 10종의 기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례를 거론하여 이해를 돕는 점이 장점이라 본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文章敍事最難, 非具史法者, 不能窮其奧竅也. 有順敍、有倒敍、有分敍、有類敍、有追敍、有暗敍、有借敍、有補敍、有特敍. 順敍最易拖闌, 必言簡而意盡乃佳, 蘇子瞻《方山子傳》則倒敍之法也. 分敍者, 本合也, 而故析其理. 類敍者, 本分也, 而巧相聯屬. 追敍者, 事已過而覆數于後. 暗敍者, 事未之而逆揭于前. 《左傳》箕之役敍狼曠取戈斬囚事, 追敍之法也. 蹇叔哭送師曰: 晉人御師必于穀云云, 暗敍之法也. 敍中所闕, 重綴于後, 爲補敍. 不用正面, 旁

은 《論課蒙學文法》에서 《左傳》의 敘事方法을 직접적으로 추출하였다.¹⁴⁾ 《論課蒙學文法》의 요지를 한 마디로 한다면, 作文의 淸경은 《左傳》과 《史記》에 대한 공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용어가 다소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서사기법의 구체적 사례나 예문이 없어, 부득이 陳繹曾과 李紱의 발언을 바탕으로 추측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장학성의 뒤를 이어 劉熙載(1813-1881)가 《藝概·文概》에서 18종의 서사기법을 제시하였다.¹⁵⁾ 그러나 유희재 역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와 취지가 가장 연계성이 큰 자료로는 馮李驊과 陸浩가 편찬한 《春秋左繡》가 있다.¹⁶⁾ 《左繡》는 오직 문학의 각도로만 《左傳》의 全文을 분석한 評點書이다. 특히 모든 단락에 걸쳐 敘事技法을 분석을 하여서 상세하기 이를 데 없다. 《左繡》는 卷首에 《讀左厄言》을 싣고 있는데, 그 안에 29종의 서사기법을 나열하고 있다.¹⁷⁾ 필자가 아는 바로는 아마 역대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서사기법을 소개한 책일 것이다. 다만 필자가 《左繡》를 비롯한 여러 서적의 서사 기법을 고찰한 결과,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명칭이 다르거나 지나치게 분석을 시도하여 번잡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감지

逕出之，爲借敘。《史記》鉅鹿之戰，敘事已畢，忽添出諸侯從壁上觀一段，此補敘兼借敘也。特敘者，意有所重，特表而出之，如昌黎作子厚墓志，獨抽出以柳易播一段是也。而又有夾敘夾議者，如《史記》伯夷、屈原等傳是也。」 상게서.

- 14) 「敘事之文，其變無窮。故今古文人，其才不盡于諸體，而盡于敘事也。蓋其爲法，則有以順敘者，以逆敘者，以類敘者，以次敘者，以牽連而敘者，斷續敘者。錯綜敘者，假議論以敘者，夾議論而敘者，先敘後斷，先斷後敘，且敘且斷，以敘作斷，預提于前，補綴于後，兩事合一，一事兩分，對敘，插敘，明敘，暗敘，顛倒敘，回環敘。離合變化，奇正相生，如孫吳用兵，扁倉用藥，神妙不測，幾于化工。其法莫備于《左氏》，而參考同異之文，亦莫多于《春秋》時事，是固學文章宜盡心也。」《章氏遺書》補遺。
- 15) 「敘事有特敘，有類敘，有正敘，有帶敘，有實敘，有借敘，有詳敘，有約敘，有順敘，有倒敘，有連敘，有截敘，有豫敘，有補敘，有跨敘，有插敘，有原敘，有推敘，種種不同。」《藝概·文概》上海古籍出版社，1984年 87쪽.
- 16) 馮李驊과 陸浩의 생졸년은 알 수 없다. 다만 朱軾(1665-1736)이 康熙59년(1720)에 序를 쓴 것에서 대략적 시대를 추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 거론한 학자들의 생졸년을 보면 유희재의 저작이 제일 뒤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17) 「《傳》中議論之精，辭令之雋，都經妙手剛潤，然尚有底本，至敘事全由自己剪裁。其中有正敘，有原敘，有順序，有倒敘，有實敘，有虛敘，有明敘，有暗敘，有預敘，有補敘，有類敘，有串敘，有攤敘，有簇敘，有對敘，有錯敘，有插敘，有帶敘，有搭敘，有陪敘，有零敘，有復敘，有間敘，有夾敘，有連經駕馭，有述言代敘，有趁文滾敘，有凌空提敘，有斷案結敘。」《左繡》卷首《讀左厄言》華川書屋藏版本.

하였다. 이에 그 중복된 것을 정리하고 명칭을 바르게 통일하여 필자 나름의 서사 기법을 도출하였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IV. 《左傳》의 서사 기법¹⁸⁾

《左傳》은 편년체 史書이다. 따라서 그 서사는 기본적으로 單線的, 直線的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사건은 입체적이고 복잡하며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因果관계에 대해 기존의 《春秋》식 直書로는 효과적인 서사를 달성할 수 없다. 필자는 《左傳》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간과 자료의 재구성이라고 본다.

우선, 시간의 처리라는 문제를 보자. 史書는 역사사건과 그것을 텍스트화 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서사과정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작자가 서사라는 과정이 개입하면 텍스트의 시간과 실제 발생한 시간이 같을 수는 없고, 만약 같게 한다면 《左傳》은 또 하나의 《春秋》식 年代記로 그쳤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바꾸거나 재구성하여, 자신의 관점 및 설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左傳》은 다양한 서사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용이나 시간의 取捨와 伸縮을 적절히 안배해서 독자에게 사건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서사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의 처리 문제가 《左傳》의 서사에서 중요하게 살필 부분이다.

두 번째는 글감, 즉 史料의 재처리 과정이다. 고사 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한다면 자신의 관점을 전달할 수 없다. 여기서 자료의 취사선택과 문자의 배분, 그리고 다시 시간과의 삼각관계가 생긴다. 무엇이 그 역사사건 전모를

18) 서사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필자는 다음 같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古文을 우리말로 옮길 경우 분량이 배가가 되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그런데 특히, 《左傳》의 경우는 원문은 극히 간결하지만 의미가 대단히 함축적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려하면 번역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늘어나고 만다. 예컨대 略敘에 인용한 일단을 보면 ‘楚人爲食, 吳人及之, 奔. 食而從之, 敗諸雍澨. 五戰, 及郢.’이라는 21자의 원문은 ‘초나라 군사들이 밥을 짓는데, 오나라 군사들이 들어 닥치자, 초나라 군사들은 달아났다. 오나라 군사들은 초나라 군사들이 지어 놓은 밥을 먹고서 다시 추격하여 옹서 땅에서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였다. 이렇게 다섯 차례를 싸우자 초나라 수도인 郢에 이르게 되었다.’이다. 필자는 되도록 인용문의 편폭을 줄이기 위해 간결한 사례만을 선별했으나, 원문의 간결함을 살리지 못한 역문이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고, 어떤 분량을 안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의 처리에서 걸출한 서사기법이 돋보인다. 그것을 아래서 예문과 함께 살펴보자.

1. 順敍

가장 흔히 보이는 서사 방법이다. 순서는 인물의 활동, 혹은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의 전후 순서로 서술을 진행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문장의 단계는 곧잘 인물 활동, 혹은 사건의 발전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문장의 요지가 인물의 성장, 혹은 사건의 전 과정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며 정연하고 맥락이 분명한 서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순서를 효과적으로 구체화 시키려면 글감의 선택과 편집, 서술 맥락의 확정, 주요한 줄거리의 전개가 관건이다. 清代 李紱은 이렇게 말했다. “순서는 자칫하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하면서 뜻을 다해야 비로소 좋은 문장이 된다.(順敍最易拖沓, 必言簡而意盡乃妙)”¹⁹⁾

순서는 直敍, 正敍, 平敍 등과 통한다. 예컨대 희공 17년의 제환공의 죽음과 제나라의 혼란, 효공의 즉위라는 사건은 전편이 順敍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간결하다.

겨울 10월 을해일, 제환공이 죽었다. 易牙가 궁중으로 들어가 내시 초와 함께 환공 애첩의 지원에 힘입어 반대파의 군리들을 죽이고 공자 무휴를 군주로 세웠다. 효공은 송나라로 달아났다. 12월 을해일, 제나라가 제환공의 사망을 알렸다. 신사일, 제환공을 염했다. 18년 봄, 송양공이 제후들을 이끌고 제나라를 쳤다. 3월, 제나라 사람이 무휴를 죽였다. …… 제나라 사람들은 효공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으나 환공의 네 아들 일파의 반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 결국 제나라는 이로 인해 드디어 송나라와 싸우게 되었다. 여름 5월, 송나라가 제나라 군사를 鬪 땅에서 깨뜨리고 효공을 제나라 임금으로 세운 뒤 회군했다. 가을 8월, 효공이 아버지 환공을 안장했다. (冬十月乙亥, 齊桓公卒. 易牙入, 與寺人貂因內寵以殺羣吏, 而立公子無虧. 孝公奔宋. 十二月乙亥, 赴. 辛巳, 夜殯. 十八年春, 宋襄公以諸侯伐齊. 三月, 齊人殺無虧. …… 齊人將立孝公, 不勝四公子之徒, 遂與宋人戰. 夏五月, 宋敗齊師于鬪, 立孝公而還. 秋八月, 葬齊桓公.)

제환공의 사후, 제나라는 측근들의 암투와 여러 아들의 권력 투쟁의 혼란에 휩싸

19) 각주 13 참조.

였고 환공의 시신은 두 달여 동안 방치되며 수습조차 못하는 지경이었다. 《左傳》은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제환공의 비극적 종말에 대해 명확하고도 깊은 인상을 준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어디서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가를 잡기가 힘들 수가 있다. 그런데 《左傳》은 오히려 그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으로써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저간의 사정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순서는 일견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독자에게 과정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대로, 《左傳》의 일견 단순해 보이는 서사는, 오히려 독자에게 霸者의 쓸쓸한 최후를 묵직하게 전하고 있다.

2. 倒敘

倒敘는 먼저 사건의 결과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시간에 따라 특정한 부분, 혹은 줄거리를 기록하여 문장의 구조가 변화가 풍부하다. 이것은 인물이나 사건의 묘사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 倒敘는 또한 逆筆, 倒插筆이라고도 한다.

5월 경신일, 정장공이 진나라를 침공해 큰 전과를 거두었다. 전년에 정장공은 진나라에 화친을 청했으나 진환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보가 간언했다. “어진 이와 친하고 이웃 나라와 사이가 좋은 것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임금은 정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좋으십시오.” “송나라나 위나라도 우리나라를 상대하기 어렵거늘 정나라가 어찌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허락하지 않았다. (五月庚申, 鄭伯侵陳, 大獲. 往歲, 鄭伯請成于陳, 陳侯不許. 五父諫曰: “親仁、善鄰, 國之寶也. 君其許鄭!” 陳侯曰: “宋、衛實難, 鄭何能爲?” 遂不許.)

먼저 정나라 임금이 진나라를 침략하여 대승한 것을 서술하고 뒤에 그 연유를 倒敘하였다. 《左傳》의 倒敘에는 간혹 ‘初’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追敘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 기법은 順序와 함께 시간 처리의 문제와 맞물린 것이다. 倒敘와 倒筆, 插筆과 追敘는 크게 보면 시간을 재배치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 분류로 귀속할 수 있다. 주요한 줄거리, 사건, 인물의 서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때로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추가성 서술을 필요로

한다. 이럴 때 追敍를 운용하게 된다. 王源은 “追敍는 하늘을 뛰어넘는 活法”이라고 했다.²⁰⁾ 본고는 이것을 倒敍에 귀속시켰다. 이에 대하여 陳平原은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서사의 시간 처리에 대하여 인식이 빈곤하였다. 서양의 정치소설과 탐정소설이 들어오고 나서야 다시금 의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左傳》의 挿筆과 倒敍 기법에 대해, 다시 그 진가에 감탄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²¹⁾ 그 대표적인 예가 환공 18년에 있다.

주공 흑견은 장왕을 죽이고 그의 아우 왕자 극(환왕의 서자 자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이것을 안 주나라 대부 신백은 장왕에게 말하여 드디어 장왕과 함께 주공 흑견을 죽였다. 그래서 왕자 극은 연나라로 도망갔다.

애초, 자의는 환왕(先王)에게 사랑을 받으니 환왕은 자의를 주공 흑견에게 의뢰해서 돌보게 했다. 대부 신백은 간언하였다. “침이 왕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서자가 적자와 대등한 것, 총신이 정경과 나란히 정권을 잡는 것, 지방 대도시가 서울과 필적하는 것은 난리의 시초입니다.” 주공 흑견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화가 미친 것이다. (周公欲弑莊王而立王子克, 辛伯告王, 遂與王殺周公黑肩, 王子克奔燕. 初, 子儀有寵於桓王, 桓王屬諸周公, 辛伯諫曰: 并后, 匹嫡, 兩政耦國, 亂之本也. 周公弗從, 故及.)

아버지 환왕은 적자인 장왕을 다음 임금으로 정했지만 동시에 서자인 왕자 극도 총애하였다. 왕자 극의 후견인인 흑견은 이를 빌미로 반역을 꾀하였다. 《좌전》은 먼저 정변의 간단한 과정과 결말을 서술한 뒤 ‘初’자를 써서 시간을 거슬러 사건의 원유를 설명하였다.

3. 詳敍

3장에서 보듯 劉熙載가 분류한 서사 방법에는 詳敍가 있는데 詳이 있다면 略도 있게 된다.²²⁾ 성긴 것과 촘촘한 것이 효과적으로 어울려야 문장의 맥락이 뚜렷해지고 주지가 부각된다. 《左傳》은 詳略을 적절히 운용하는데 뛰어나다. 梁啓超는

20) 「追敍之法, 乃凌空跳脫之活法也」 王源, 상계서.

21) 陳平原 〈從言辭到文章 從直敍到敘事〉: 《文學遺產》, 1996 4기 12쪽 참조.

22) 각주 15 참조.

《左傳》이 전쟁을 기록하는데 있어 전쟁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戰況은 간략하다고 했다.²³⁾ 王源은 “《左傳》은 전쟁을 기술할 때 권모나 방략을 앞에 서술하고 실제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은 한두 마디에 불과하다”고 했다.²⁴⁾ 그의 말뜻은 戰前 기록이 상세하고 오히려 戰時 묘사는 적다는 것이다. 詳敘는 중요한 연결점에 착중하여 서술은 상세하되 언어는 정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공 10년 제나라와 노나라의 長勺之戰의 경우를 보자.

10년 봄, 제나라 군사가 노나라로 쳐들어왔다. 노장공이 전투에 나가려 했다. 대부 조귀가 뵈기를 청했다. 그의 고향 사람이 말했다. “지위가 높은 자들이 생각할 일인데 그대가 왜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안목이 짧아 멀리 내다볼 수 없소.” 그러고는 노장공을 만나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물었다. 장공은 대답했다. “편안히 입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감히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반드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소.” “그것은 작은 은혜에 불과해 그 은혜가 백성에게 두루 미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군주를 좇아 죽기로 싸우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드릴 때 희생이나 옥백을 바치면서 감히 거짓으로 고하지 않고 반드시 성심을 다해 진실을 고했소.” “그것은 작은 믿음에 불과한 것으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사직의 귀신이 그로 인해 승리를 도와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옥사를 비록 다 밝게 살피지는 못했으나 반드시 정리에 맞게 처리했소.”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충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것이라면 한번 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청컨대 출병할 때 군주와 함께 종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 바랍니다.” 이에 노장공이 출병하면서 조귀와 더불어 같은 전차를 타고 나가 장작에서 제나라 군사와 싸웠다. 노장공이 진격의 북을 울리려고 할 때 조귀가 만류했다. “아직 불가합니다.” 이때 제나라 군사가 세 번이나 북을 울렸다. 그때서야 조귀가 말했다. “이제 북을 쳐도 좋을 것입니다.” 과연 노나라 군사가 이때 북소리에 맞추어 진군하자 제나라 군사가 패했다. 노장공이 제나라 군사를 추격하려고 하자 조귀가 만류했다. “아직 불가합니다.” 그러고는 전차에서 내려 제나라 군사의 전차 바퀴 자국을 살펴보고 다시 전차에 올라 軾을 잡고 멀리 제나라 군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본 뒤 말했다. “이제 추격해도 좋습니다.” 이에 노장공이 전군에 명령하여 제나라 군사를 추격하게 했다. (十年春, 齊師伐我, 公將戰, 曹劌請見, 其

23) 「《左傳》寫兵戰, 詳在前而略在後, 卽記戰前雙方如何最詳, 多則占全篇十分之七以上, 至少也占二分之一. 《左傳》敘戰況等少, 不到十分之一, 最多不到二分之一.」 梁啓超 《作文教學法》.

24) 「左氏敘戰, 每將權謀、方略鋪敘于前, 而實敘不過一兩言.」 王源 《左傳評》.

鄉人曰：“肉食者謀之，又何間焉？”蒯曰：“肉食者鄙，未能遠謀。”乃入見，問何以戰。公曰：“衣食所安，弗敢專也，必以分人。”對曰：“小惠未徧，民弗從也。”公曰：“犧牲、玉帛，弗敢加也，必以信。”對曰：“小信未孚，神弗福也。”公曰：“小大之獄，雖不能察，必以情。”對曰：“忠之屬也，可以一戰。戰，則請從。”公與之乘。戰于長勺。公將鼓之。蒯曰：“未可。”齊人三鼓。蒯曰：“可矣！”齊師敗績。公將馳之。蒯曰：“未可。”下，視其轍，登軾而望之，曰：“可矣！”遂逐齊師。)

조귀의 탁견을 묘사하기 위해 전쟁 전에 책략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쓰고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전쟁 결과는 그저 ‘제나라 군대가 패배하였다’라는 말로 가장 간결하다. ‘曹蒯論戰’은 詳敍와 略敍가 적절히 운용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詳과 略이 짝을 이루어 처리되어 독자들은 쉽게 노나라의 승리 원인을 알 수 있다. 어느 곳을 상세하게 하고, 어느 곳을 간략하게 처리할 것인지는 모두 문장의 의도에 근거하여 주제를 심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4. 略敍

略敍는 約敍라고도 하며, 상황이나 시간을 압축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元代 陳繹曾은 이렇게 말했다. “略敍는 말을 줄여 간략히 표현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모두 갖추고 있다.”(略敍, 語簡事略, 備見首尾.)²⁵⁾ 인물의 성장과정이나 사건의 발생과 경과 중 자세히 서술할 필요는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略敍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정공 4년 오나라와 초나라의 柏舉之戰이 그러하다.

오나라가 초나라를 추격해 청발이란 물가에 이르러 공격을 하려 했다. 부개왕이 말했다. “포위된 짐승도 오히려 싸우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만일 저들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먼저 강을 건너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뒤에 처진 자들은 앞 다투어 건너가려 할 것이고 싸울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반을 건넜을 때 공격하면 됩니다.” 이 계책을 좇아 또다시 초나라 군사를 대파했다. 초나라 군사들이 밥을 짓는데, 오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초나라 군사들은 달아났다. 오나라 군사들은 초나라 군사들이 지어 놓은

25) 각주 12 참조.

밥을 먹고서 다시 추격하여 웅서 땅에서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였다. 이렇게 다섯 차례를 싸우자 초나라 수도인 郢에 이르게 되었다. (吳從楚師, 及清發, 將擊之. 夫槩王曰: “困獸猶鬪, 況人乎? 若知不免而致死, 必敗我. 若使先濟者知免, 後者慕之, 蔑有鬪心矣. 半濟而後可擊也.” 從之, 又敗之. 楚人爲食, 吳人及之, 奔. 食而從之, 敗諸雍澁. 五戰, 及郢.)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반이 전쟁 시작 전 부개왕의 언사이고, 나머지 반이 전쟁의 전 과정이다. 그런데 실제 시간으로 볼 때 발언은 한 순간이고, 전투 시간은 대단히 길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문자의 배분은 전쟁 과정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초나라 사람들이 막 밥을 짓고 있는데 오나라 사람들이 들이 닥친다. 초나라 사람들은 달아나고 오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가 해 놓은 밥을 먹고 다시 쫓아간다. 대단히 간결하게 기록했지만 굳이 전투장면 묘사나 특정 인물의 활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오나라 군대의 압도적 기세와 초나라 군대의 낭패한 상황이 독자들에게 역력하게 전달되는 훌륭한 문장이다.

5. 對敍

對敍는 동시에 두 사람 혹은 두 사건을 서술하여 서로 대조되어 是非功過의 소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성공 16년 진나라와 초나라의 鄢陵之戰은 두 진영을 대비하는 것으로 써내려갔다. 이것은 마치 화면을 둘로 나누어 동시에 쌍방을 보여주는 것인데, 텍스트화 할 때는 부득이 先後가 생겨 독자들이 그 기법을 놓치기 쉽다.

진여공이 정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 이에 결국 출병하게 되었다. 난서가 중군 주장, 사섭이 중군 부장, 극기가 상군 주장, 순언이 상군 부장, 한궐이 하군 주장, 극지가 신군 부장이 되었고 순앵은 남아서 지켰다. 극주는 위나라에 갔다가 또 제나라에도 갔는데 모두 원군을 요청하려는 것이었다. 또 난염도 노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러 왔다. 맹헌자가 말했다. “우리 진나라가 초나라를 이길 것이다.” 무인일, 진나라 군사가 출병했다. (중략) 초공왕이 정나라 구원에 나섰다. 사마가 중군 주장, 영윤이 좌군 주장, 우윤 자신이 우군 주장이 되었다. 초나라 군사가 신읍

을 지날 때 자반이 성 안으로 들어가 신속시를 만난 뒤 물었다. “이번 출전은 승패가 어찌 되겠습니까?” “덕, 형, 상, 의, 예, 신의 6개 항은 전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요. (중략) 그러나 지금 우리 초나라는 안으로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는 인국과의 우호를 끊어 맹약을 가벼이 여겨 약속한 비를 식언하고, 농사철을 어기며 군사를 동원하여 백성을 지치게 만들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소. 이에 백성들은 군주의 신의를 알지 못해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모두 죄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소. 이처럼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려고 하겠소. 그대는 애쓰시오. 나는 다시는 그대를 보지 못할 것이오.” (晉侯將伐鄭. …… 乃興師. 欒書將中軍, 士燮佐之; 郤錡將上軍, 荀偃佐之; 韓厥將下軍; 郤至佐新軍. 荀營居守. 郤犇如衛, 遂如齊, 皆乞師焉. 欒黶來乞師. 孟獻子曰: “晉有勝矣.” 戊寅, 晉師起. …… 楚子救鄭. 司馬將中軍, 令尹將左, 右尹子辛將右. 過申, 子反入見申叔時, 曰: “師其何如?” 對曰: “德、刑、詳、義、禮、信, 戰之器也. …… 今楚內棄其民, 而外絕其好; 瀆齊盟, 而食話言; 奸時以動, 而疲民以逞. 民不知信, 進退罪也. 人恤所底, 其誰致死? 子其勉之! 吾不復見子矣.”)

두 나라 군대의 人選을 對敍하였고 특히 두 나라 重臣의 말을 대서하였는데 한 쪽에서는 ‘이길 것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그 누가 죽으려 하겠는가’라는 언급으로서 서로 다른 전쟁에 대한 심리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전쟁은 결국 초나라 사령관 자반은 자결하고 그 군대는 대패한다. 독자들은 이미 위의 간명한 대비를 통해 승패에 대한 짐작을 하게 된다.

6. 插敍

插敍는 插筆이라고도 한다. 서술 중간에 잠시 주요 사건의 전개를 중단하고 주요 사건과 상관된 인물 혹은 사건의 서술이 개입되는 것이다. 주요 사건의 서술은 순서의 방법을 쓰고 삽입된 단락 역시 순서이다. 林紓는 이렇게 말했다. “서술이 극적인 부분에 이르게 될 때 삽필이 없으면 두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기에 이르게 된 연유를 보충해 넣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술이 갈래가 많은 곳에 이르게 될 때 삽필이 아니면 매끈하게 처리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된 바를 밝혀 주어야 한다. 최대한 자연스러워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 없어야 좋은 문장이라 할 수 있다.”²⁶⁾ 예컨대 성공 16년의 鄴陵之戰을 보자.

계사일, 반당이 대부 양유기와 함께 갑옷을 겹쳐놓은 뒤 활쏘기 시합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화살 한 대로 갑옷 일곱 벌을 꿰뚫었다. 이들은 곧 이를 초공왕에게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군주는 이같이 뛰어난 두 명의 명사수를 두었으니 이기지 못할까 심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초공왕이 대로하여 말했다. “오직 활 쏘는 재주만 믿고 지모를 쓸 줄 모르니 이는 초나라의 커다란 치욕이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활을 쏘게 되면 그 활 쏘는 재주로 인해 죽을 것이다.” (중략) 진나라와 초나라 군사가 교전하게 되자 진나라 여기가 활을 쏘아 초공왕의 눈을 맞혔다. 이에 초공왕이 양유기를 소리쳐 부른 뒤 화살 두 개를 주고는 여기를 쏘게 했다. 양유기가 여기를 겨누어 화살을 날리자 여기가 양유기의 화살을 인후에 맞고 곧바로 활집에 엎어져 죽었다. 양유기는 남은 한 대의 화살을 초공왕에게 돌려주면서 이를 복명했다. …… 이에 진나라 군사들이 추격을 멈추었다. (癸巳, 潘廕之黨與養由基蹲甲而射之, 徹七札焉. 以示王, 曰: “君有二臣如此, 何憂於戰?” 王怒曰: “大辱國! 詰朝爾射, 死藝.” …… 及戰, 射共王中目. 王召養由基, 與之兩矢, 使射呂錡, 中項, 伏殺. 以一矢復命. …… 晉師乃止.)

이 인용문은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쟁 과정을 순서의 방법으로 기술하던 중 중간에 돌연 삽입된 단락이다. 언릉지전의 발생 하루 전 반당과 양유기 두 사람은 모두 화살 하나로 갑옷 7개를 뚫었다. 두 사람은 서로 뽐내며 말했다. “임금께 이러한 두 신하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공왕은 그들을 꾸짖었다. 동시에 그들에게 다음날 전쟁에서 활을 쓰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쟁 당일, 초공왕은 적이 쏜 활에 맞아서 부득이 양유기를 찾아 그에게 화살 두 대를 주고 쏘라고 명령하였다. 양유기는 한 발로 적장을 명중시키고 나머지 화살 한 발을 왕에게 다시 바쳤다. 양유기의 신공은 초나라 군대와 임금을 구했다. 독지는 이 한 단락의 挿敍로 인해 초나라가 완패를 면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7. 補敍

서사 과정 중 누락된 내용을 문후에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李紱은 “서사 중 빠진 부분을 뒤에서 다시 있는 것을 보서라 한다”(敍中所闕, 重綴于後, 爲補敍.)고

26) 「敍到吃緊處, 非插筆則眉目不清, 故必補其所以致此之由; 敍到紛煩處, 非插筆則綱要不得, 故必揭其所以必然之故. 總之, 須近自然, 無嵌附填塞之弊, 方爲佳筆.」 林紱《春覺齋論文》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122쪽.

했다. 挿敍는 문장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고, 補敍는 뒷부분에 이어붙이는 것이다. 補敍는 앞부분 서술과 내재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와 논리 구조나 흐름에 맞지 않는 補敍는 사족이 된다. 補敍를 잘 운용하면 문장의 결말 전에 변화를 줄 수 있어 독자에게 여운을 줄 수 있다. 사건의 실마리가 복잡한 경우 《左傳》은 補敍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희공 28년이 그러하다.

城濮 전쟁이 일어나기 전, 초나라의 元帥 子玉은 瓊弁과 玉纓을 만들었으나,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꿈에 河神이 나타나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너에게 孟諸의 땅을 주리라”했다. 그러나 子玉은 河神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大心과 子西가 榮黃을 시켜 河神의 요구를 듣기를 권유했다. 子玉이 거절하자 榮黃이 말했다. “죽어서 나라에 이롭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구슬을 아까와 합니까? 이것은 썩은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서 우리 군대가 이긴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子玉이 듣지 않자 榮黃이 나와 두 사람에게 말했다. “河神이 令尹(子玉)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令尹이 백성에게 진력을 다하지 않고 계시니, 실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初, 楚子玉自爲瓊弁、玉纓, 未之服也. 先戰, 夢河神謂己曰: “畀余! 余賜女孟諸之麋.” 弗致也. 大心與子西使榮黃諫, 弗聽. 榮季曰: “死而利國, 猶或爲之, 況瓊玉乎? 是糞土也. 而可以濟師, 將何愛焉?” 弗聽. 出, 告二子曰: “非神敗令尹, 令尹其不勤民, 實自敗也.”)

《左傳》은 城濮之戰의 결말을 적은 후, 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삽입하여 楚가 이 戰役에서 패한 이유를 보충해 설명하고 있다. 《左傳》이 위와 같은 일화를 삽입한 것은 榮黃의 말을 빌려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자 한 이유에서이다. 귀신을 믿지 않는 子玉의 행동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大心과 子西, 榮黃가 미신적인 경향이 강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子玉에게 위와 같이 간언한 목적은 나라를 위해 진력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이 子玉을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子玉이 백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패할 것”이라 예언하였다. 물론 《左傳》의 의도는 미신을 선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元帥에게 엄숙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복지전은 두서가 번잡한 사건인데 작자는 진나라의 필승을 암시하는 작은 고사를 전쟁 후에 서술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맥락을 뚜렷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맛까지 더하고 있다.

8. 預敍

預敍는 伏脈, 伏線이라고도 한다. 글을 쓸 때 미리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암시하여 후에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 과정이 전후가 호응하여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林紓는 “글쓰기에는 복필이 있는데 바로 伏脈이다. 얼핏 보면 그 흔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呂東萊가 문장을 논할 때 말하기를 형태가 있는 것은 綱目이고, 형태가 없는 것은 血脈이라고 했다. 《春秋經傳集解》에서 杜預가 말한 張本이 이것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복선이라고 말한다.²⁷⁾ 穀之戰의 첫 시작은 다음 문장에서 시작한다.

魯 僖公 32년 겨울, 晉의 文公이 세상을 떠났다. 庚辰날에 曲沃에서 殯하고자 絳城을 떠났다. 그때 靈柩에서 소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러자 卜 偃이 大夫들에게 拜禮를 하게하고 말했다. “돌아가신 先君께서 큰일을 명하고 계십니다. 장차 西方의 군사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인데, 그 군사를 치면 반드시 大勝할 것입니다.” (僖公三十二年冬, 晉文公卒. 庚辰, 將殯于曲沃. 出絳, 柩有聲如牛. 卜偃使大夫拜, 曰: “君命大事, 將有西師過軼我, 擊之, 必大捷焉.”)

이것은 晉 文公의 사망 시, 主戰派들이 秦과의 一戰을 미리 선포한 것으로 穀之戰의 伏線이 晉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사실 秦나라는 鄭나라를 공격하려 했을 뿐인데, 뜻하지도 않은 晉나라의 기습에 궤멸한다. 이 인용문 뒤에는 秦 穆公이 욕심에 눈이 멀어 蹇叔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出師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秦은 晉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데 반해, 晉은 이미 필승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었다. 위 인용문이 戰前의 첫 단락에 속한다.

9. 夾敍夾議

서술 과정 중에 의론을 삽입하는 기법이다. 서사와 의론이 결합하여 독자들이 사건이나 인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글을 매듭짓는

27) 「行文有伏筆, 卽伏脈, 猝觀之實不見有形迹, 故呂東萊論文, 謂有形者綱目, 無形者血脈. 《春秋經傳集解》裏杜預所謂張本是也.」 林紓, 상계서 117쪽.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의론이 견강부회하면 서사와 분리되어 문장이 지루해지고 억지스러운 단점이 생긴다. 《左傳》은 의론을 제시할 때 군자의 이름을 빌려 쓰곤 한다. 제일 많은 것은 ‘君子曰’로, 54번 등장하고, 그 외에 ‘君子謂’, ‘君子以爲’ 등이 20여 차례 등장한다. 《左傳》은 주로 君子의 이름을 빌려 시비를 분명히 판정한다. 《左傳》 이후부터 사마천이 그 방법을 계승하였다. 후세 史書에는 ‘太史公曰’, ‘贊曰’, ‘論曰’, ‘評曰’ 등의 여러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굳이 어떤 표지를 내세우지 않고도 작자가 서사에 간섭할 수 있다. 단 《左傳》은 君子를 통상 내세운다. 예컨대 文公 13년의 고사를 보자.

邾나라 文公이 繹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점을 쳤다. 점을 친 史官이 말하길 “백성들에게는 이로운 일이지만, 임금님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말했다.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익인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서 임금을 세운 까닭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나는 반드시 동의할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길 “遷都하지 않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임금의 진정한 命은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찍 죽는가, 늦게 죽는가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진정한 命이라 할 수 없다. 백성에게 이롭다면 도움을 옮기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이보다 더 이로운 일은 없다.” 결국 繹으로 遷都했다. 그리고 얼마 못가 五月에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君子가 그를 칭찬해 말했다. “邾 文公은 진실로 임금의 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邾文公卜遷于繹. 史曰: “利於民而不利於君.” 邾子曰: “苟利於民, 孤之利也. 天生民而樹之君, 以利之也. 民既利矣, 孤必與焉.” 左右曰: “命可長也, 君何弗爲?” 邾子曰: “命在養民. 死之短長, 時也. 民苟利矣, 遷也, 吉莫如之!” 遂遷于繹. 五月, 邾文公卒. 君子曰: “知命.”)

夾敍夾義는 史官의식, 도덕의식의 발로로 일종의 서사 간섭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시간과 관련된 것은 順敍, 倒敍, 插敍, 補敍이고, 史料의 내용에 대한 取舍伸縮과 관련된 것은 詳敍, 略敍, 對敍이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기법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 꼭 하나만의 기법을 가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위의 9종 기법은 최소한의 기본 패턴을 나누고자 할 때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V. 나가며

본고는 주로 전통시대의 학자들의 견해를 위주로 《左傳》의 서사기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근현대 학자들도 《左傳》의 서사기법에 대하여 적지 않은 언급을 하였다. 3장 각주 7에 인용한 바와 같이, 양계초는 《要籍解題及其讀法》에서 이렇게 말했다. “《左傳》의 문장은 이름답고 그 기사는 극히 복잡한 사항, 예컨대 다섯 가지 큰 전쟁의 기록은 글의 조리가 매우 근엄하고 분명하다. 줄거리의 서술도 극히 부드럽고 간결하여 서사 기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 記言은 문장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쳐 이후로 이에 비견할 것이 거의 없다. 또한 그 문장은 비록 매우 오래된 것이나 읽기 어려운 단점이 없고 자못 쉽게 읽고 익힐 수 있다. 따라서 글을 배우는 것을 오로지 목적으로 할 때 《左傳》은 마땅히 정독하는 자리에 있다.” 유대걸 역시 “《左傳》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우수한 歷史散文 작품이다”라고 말한다. 후자는 《左傳》이 경학의 시대에는 경전의 권위로 인해 존중받았다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經學의 시대와 결별한 이후, 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左傳》을 추송하는 所以然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左傳》의 탁월한 서사가 현재에도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左傳》의 서사는 위로는 시간순의 直敘를 벗어나 시간의 속박을 넘어섰고, 아래로는 記言과 記事를 합일하여 새로운 기법을 《史記》에 전수하였다.

기실 역사서사는 매우 복잡한 단서들을 모아 보아야 하지만, 그 저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일관하는 중심을 잡지 않고, 이런저런 모든 사건을 서술하다 보면 도리어 사건의 진상을 흐리게 하며 독자들은 힘들게 읽어도 오리무중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서사이던 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잡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서사에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가. 바로 역사의 所以然을 독자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左傳》은 편폭이 방대하나 번잡하지 않고, 劉知幾의 말처럼 독자들이 피곤을 잊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에 끌려가게 된다. 이것은 역사의 전절이나 관건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쓰고, 관련 없다면 큰 것이라도 취하지 않는 서사에서 비롯되며, 편년체 역사서는 발생한 자연시간대로 기록한다는 전통을 타파한 기법을 운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것을 집중과 생략의

원칙이라고 본다. 본고는 문학적인 서사만을 다루었다. 《左傳》의 서사와 解經의 문제 및 《公羊傳》과 《穀梁傳》의 서사를 함께 다룬다면 더욱 전면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杜預《春秋經傳集解》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杜預注、孔穎達疏《春秋左傳注疏》北京, 中華書局, 1980
 楊伯峻《春秋左傳注》北京, 中華書局, 1993
 《春秋左傳》卷首《讀左卮言》華川書屋藏版本
 劉知幾《史通》台北, 台灣廣文書局, 1963
 劉知幾著, 浦起龍釋《史通通釋》, 臺北, 藝文印書館, 1988
 章學成《文史通義》北京, 中華書局, 1994
 林紓《左傳擷華》北京, 商務印書館, 1921
 林紓《春覺齋論文》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劉熙載《藝概》,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錢鍾書《管錐編》北京, 中華書局, 1994
 郭預衡《中國散文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郭預衡《中國古代文學史長編》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2
 趙明主編《先秦大文學史》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3
 漆緒邦《中國散文通史》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4
 譚家健《先秦散文藝術新探》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周振甫《中國文章學史》北京, 中國文聯出版公司, 1995
 陳平原《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魯曉鵬, 조미원 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鄭尊、譚全基編《古漢語修辭學資料匯編》, 北京, 商務印書館, 1988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9
 제혜성 《〈左傳〉 서사의 소설적 특징에 관하여》, 《중국어문학》 제37집, 2001

【中文提要】

關於中國古代散文的敘事方法，歷代文人發表了各種各樣的看法，但大多數的言論是片言隻字，失于抽象。而且，對敘事方法的具體分析，寥寥無幾。其中較全面而系統的著作是唐代劉知幾《史通》、元代陳繹曾的《文筌》、清人李紱的《秋山論文》、章學誠的《論課蒙學文法》、劉熙載《藝概·文概》、清人馮李驊的《左繡》等。因為他們研讀的是古代散文，所以他們的理論尤其是他們對於《左傳》的意見，對今天的我們而言，還是具有很強的啟發性的。綜觀諸家之說法，越來越精緻，但其失于煩碎。并且，諸家之說，頗多異名而同實者。在本稿中，我將試整理歸納前輩的說法以分析《左傳》之敘事。左氏不滿足于歷史過程的概括敘述，而是通過具體的故事情節以至細事末節的描寫，形象生動地展示歷史事件。作者創造性地運用了精彩細密的敘事技巧和各種獨特的藝術手法，使其敘事精妙優美，其敘事文約而事豐，簡潔而生動。與《春秋》相比，實已不可同日而言。在敘事藝術上，它達到了那個時代的最高水平，標志着史家之文的發展進入了一個嶄新的時期。後世論者往往將它視為典範，奉為圭臬。劉知幾稱《左傳》是‘敘事之最’，這句話到今天仍具有值得我們細心玩味的價值。

【主題語】

敘事, 《春秋》, 《左傳》, 史傳, 歷史, 時間, 直敘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